

# 보편적 소통 가능한 학교 공공 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도시 재생적 측면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ublicness in Public Design with Schools for Universal Communication

- Focused on aspects of Urban Regeneration -

이 용 환\*

Lee, Yong-Hwan

### Abstract

Recently, multiple metropolitan counties and local authorities have been actively working on improving their local existence with various methods and strategies. Such change cannot be observed when local authorities were chosen by the government. Also, the public administration has recently emphasized important factors of public design which seeks better lifestyle and outward beauty from quantitative growth and policy of strongly considering outward form due to the compressive modernization.

Public design intends to complete aesthetic factor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s the efficiency as the valu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how public school has been evolved as public space and how to create local user-centered interaction. The study retrieve the communication which the essential publicness in the school public design and the self-management which is the original value in terms of sociology. The method in which the characters of the public design of the publicness have been changed will be concentrated on in public area.

In addition, the study has been focused on the efforts of the reflection of the development in public design are the challenges for the aim of the design of the publicness.

키워드 : 지자체, 공공 영역, 공공 공간, 공공성, 지원시설, 공공성,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Keywords : Local authority, Public sphere, Public space, Publicness, Public architecture, Public desig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식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도시화와 개인화의 물결로 인해 사회의 공공성 구현에 관한 해석과 실현이 감소되어가고 있으며,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교육환경 내 공공성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대사회에서 공공성이란 다수의 공공영역들이

복합적으로 관계를 맺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용자들의 다양한 시각과 만족감을 이해하고 사회적 소통이 가능한 역할을 하는 기능적 시설물과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공공디자인은 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이며 디자인의 수준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중요한 문화정책이다.

하버마스는 공공이라는 말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한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공서나 공권력 등의 국가와 관련된, 도시의 일반인들,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형태,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적 개인들이다. 이러한 공

\* 연성대학교 공간디자인학부 교수, 건축학박사  
(yhlee@yeonsung.ac.kr)

공이라는 말의 다의미성과 다가치성은 정치구조의 산물로서 변화하는 사회조직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sup>1)</sup>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기존의 문헌이나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공성의 정의, 공공디자인의 개념, 현대 공공디자인의 범주, 공공디자인의 운영체제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의 공공건축 범주의 학교시설의 공공디자인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현재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제도적 검토를 통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을 판단해 보고자 하였으며,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학교 공공디자인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디자인 가운데 특히 학교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에서 주체가 되는 지역 학교의 사용자 및 지역민의 공공성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소통하여 공간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그 공공디자인이 지향하는 공공성의 가치와 소통의 디자인적 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보편적 소통을 위한 공공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론적 문헌자료를 통하여 고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의 공공성의 개념과 공공성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보편적 소통 개념 및 역할을 살펴보고 공공디자인을 위한 기초적 의미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보편적 소통과 사용 주체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통해 자발적인 도시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공공 공간의 특성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경험을 유발하는데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도시적 재생을 위한 학교 공공디자인의 공공성 구현을 위해 지역 및 학교 사용자 주체의 공간디자인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II. 보편적 공공성의 이론적 고찰

### II-1. 보편적 소통 공간의 역할과 공공성

공간이란, 사용자의 경험에 의해서 변화되고 생성되는 체계의 집합체이다. 그러나 공간에 관한 철학과 이론들은 사용자들의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사용 행위와 경험의 중요성을 배제하고 '보편적 소통의 공공성'이라는 이전 경험적 대상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여 왔다.

이와 같이 동질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추상적 개념의 사용자와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사용의 독창성과 창의적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같은 사용자 중심의 명확한 공공건축에서 보편적 소통의 개념인 개방적 시각의 시스템으로 공공디자인이 공공성 확보라는 방향으로 진화되도록 그 기초적인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보편적 소통이란, 공공의 참여이다. 보편적 소통의 공공디자인 정책은 공공성과 자율성이 조화되는 측면 시점에서 시작된다.

이는 개인의 습성에서 시작한 미적 감각이 사회와 결합되지 못할 때에는 개인의 성향을 떠나서 인간 공동의 가치와 행위를 담아내는 공공성이 구현되지 못한다.

디자인에 있어서 보편적 공간이란, 디자인에 유동성(Mobile)을 부여하기 위해 주변공간의 환경적인 요소를 디자인에 접목시키는 것이며, 궁극적인 디자인을 통해 디자인 주체들의 소통을 도모하고 그 장소와 동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 1) 하버마스의 보편적 의사소통 행위 개념

철학적 관점에서 하버마스는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합리화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천적 접근방식으로 의사소통합리성이라는 포괄적인 보편적 합리성 개념을 제시한다. 의사소통합리성은 합리적으로 일치된 개념의 상호관계를 통해 객관적 세계의 상호체계를 확인시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sup>2)</sup>

하버마스의 소통적 합리성은 이성적 판단에 의한 일상의 맥락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조직된 체험이나

1) Jürgen Habermas,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출판, 2001

2) 서규환, 소통행위이론, 의암출판사, 1995

체계적으로 조직된 담론의 수준에서의 인식과 언어를 통한 이해 도달 및 행위에 대한 합리성의 형식적 조건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은 역사적인 현실을 기존 질서와 일치시키는데 있어 한계성을 해결하였다.<sup>3)</sup>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합의에 대한 합리성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종래의 합리성은 보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다고 전제되는 투명한 인식 기능으로 이성의 빛과 일치하는 것, 즉 이성의 빛에 따른 믿음이나 행동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버마스의 상호 이해를 지향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 합의로서 합리성은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어떤 견해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고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버마스의 합리성 이론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하버마스는 우선 합리성의 개념에 관한 좁은 의미의 인지적 이해를 주장한다. 먼저 우리가 목적 지향적 행위 안에서 명제적 지식의 비의사소통적 적용으로부터 출발할 때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의 개념과 만나게 되는데, 이 개념은 경험주의를 넘어 근대의 자기이해에 두드러진 인상을 심어준 개념이다.<sup>4)</sup>

## 2) 공공성의 개념 고찰

공공(公共)은 시민 또는 대중이라는 개념이며, 라틴어로 푸블리쿠스(publicus)<sup>5)</sup>, 공공(populus)라는 단어이다. 푸블리쿠스는 공적 시민이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토론 혹은 공공정책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공이라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정치체제를 위한 공적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서 ‘국가 공동체’에서 공공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은 먼저 정치적 공간이라는 최초의 언어에서 출발

하여 오늘날 빈번하게 사용되는 공공성으로 전이되었다.

공공성은 공적 복리, 공적 이익, 공적 질서라는 의미를 포괄하며 정치적 공동체라는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내포하였다.<sup>6)</sup> 공공성은 시대적 이론가에 의해서 그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어지고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버마스는 공공성을 띤 공공영역을 국가의 ‘공공권위영역’, 시민사회의 ‘부르주아계급공공영역’, 국가와 시민사회사이의 ‘상호결합영역’인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였다.<sup>7)</sup>

공공영역은 공공성에 대한 이념을 만들어내며, 근대성의 바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가의 공적 권력정책영역과 구분이 되는 공공영역은 ‘공적인 사적 영역’으로서 공적 영역에 대한 사적인 의사참여를 부여하며<sup>8)</sup>, 더불어 공공성은 국가의 정치적 지배권의 역할이라는 공적인 가치 이외에 공공복리, 공개성과 개방성, 공동 이라는 가치가 부가된 의미로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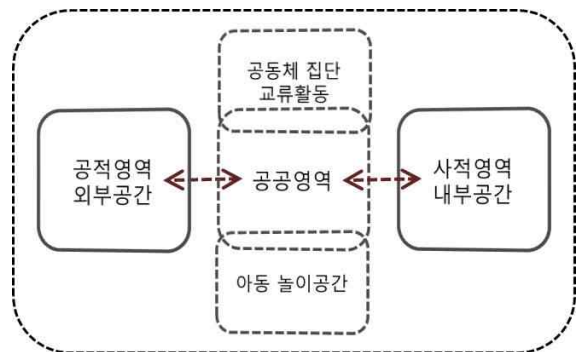


그림 1.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개념 (하버마스 분류)

근대적 공공성이란, 공적 공간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일치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체계가 마련되는 것에서 그 개념이 있다. 공적 영역에서는 정부와 같은 힘의 권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사적 영역에서는 공적 영역에 대한 권리가 상쇄되면서 시민은 문화에 만족하게 된다. 하버마스는 관료화된 체계를 지적하면서 주장한 의사소통체계를 통합 합리화는

3) 서규환, 전계서

4) 권점수, 이성과 대화의 변증법,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 어원은 첫째, 공공의 국민의 공적인, 공식적인, 국가의, 공유의, 둘째, 대중(公衆)의, 일반사람들의, 셋째, 공개의 개방된, 누구나 참가하는, 공개된, 넷째, 대중적인, 보통의, 평범한 의 의미이다. 카톨릭대학교 고전라틴어 연구소, ‘라틴-한글사전’, 카톨릭대학교, 1995

6) 성윤정, 공공디자인의 공공성(公共性) 개념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0

7) Jürgen Habermas,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출판, 2001

8) 최갑수, 서양에서 공공성과 공공영역, 진보평론 제9호, 2001

정부 권력 내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조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공(公共)은 정치 및 정책적 공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표 1. 사적영역과 공공영역의 디자인 비교  
<문화관광부, 디자인 문화원 설립 기본방향연구, 2005>

산업사회 시스템	사적영역의 디자인	공공영역의 디자인
기능	소비를 통한 사적 취향과 생활양식 표현	공공영역을 통한 디자인의 사회성 강화
매개	시장	공공사업
주체	기업과 소비자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표1은 사적영역에서의 디자인과 공적영역에서의 디자인의 차이를 보여주며, 공공디자인의 사용 주체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정부나 기초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일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적 성향보다는 보편성을 가진 공공에 의한 변용성을 더 중요시하며, 시대적인 유행에 맞추기보다는 대중에 지속적인 필요와 욕구에 맞춰진다.

최근 학교와 같은 공공건축과 도시 재생디자인 분야에서 시민 혹은 주민의 참여가 정책의 입안, 사업 진행 및 관리 등 다양한 영역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행정이나 정치 입안자를 중심으로 한 것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데서 공공성의 의미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9)</sup>

실제로 공공(公共)관련 정책 및 디자인의 보편적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공개적 소통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의견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양화되어가는 융복합 사회의 공공복리와 공공디자인의 균형을 찾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은 미적으로 과장된 개인의 성향과 소비적 행태의 과정에 따른 결과로 앞에서 언급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불균형을 초래해왔다.

반면 공공 디자인은 사용자를 위한 사회적 기능인 동시에 공통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영역이다. 이는 디자인이 지니고 있는 순수한 의미에서 독창적인 창조적 활동은 분명히 문화 체제와의 상호 교류를 통한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러한 사회적 실천이 바로 공공성을 띤 공공 디자인

의 필수조건이며, 사적 영역으로 집중된 디자인이 사용자를 위해 구현되고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공공의 공통감 실현을 위한 사회적인 공공 디자인의 역할은 심미성의 사회화와 사회적 실천이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성은 아래로부터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관계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 II-2. 공공디자인의 개념

공공디자인의 역사적 배경은 18세기 유럽에서는 계몽주의<sup>10)</sup>라는 지적운동의 등장과 함께 공공(Public)의 개념이 건축과 문화예술의 시작되었다. 보편적 시민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공적 성격의 건축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공공건축의 형성을 통해 공공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공간이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공공디자인이란 넓은 의미에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모든 영역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로 개별적인 소비재를 중심으로 시장을 통해 판매되는 사적영역의 디자인과 구별되며, 그 자체가 공공적이거나 또는 사유물이라 할지라도 공공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공디자인은 한 사회와 국가의 질적 수준을 사회문화적 구조체이며, 공공사업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구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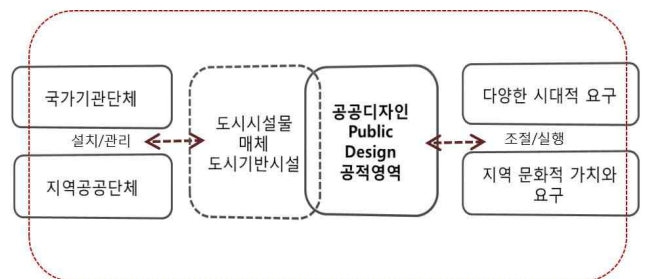


그림2. 공공디자인의 일반적 개념  
<행정자치부, 공공디자인 매뉴얼, 2007>

정부 및 각 지자체, 학계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관광부(2007)에서는 공공디자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제작·설치·운영·관리하

10) 신, 이성, 자연, 인간 등의 개념을 하나의 세계관을 통합한 사상운동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넓은 보편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술과 인문학에 발전을 가져왔다.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1g3392a](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1g3392a)>, “계몽주의” 한국 브리태니커, 2014.4

9)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9

는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 각종 상징물, 증명서, 행정서식 등의 각종 공간, 시설, 용품, 정보와 관련된 디자인과 일상생활 환경에서 사적 소유물이지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적영역의 디자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의 디자인”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2007)에서는 공공디자인을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 장치를 합리적으로 꾸미는 것으로 제품, 산업디자인 등 사적영역이 아닌 국가/지방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설치를 관리하는 기반시설, 매체, 가로시설물 등을 위한 공적영역의 디자인”으로 즉, ‘국가 공공기관의 관리 안에서 국민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가치와 요구를 조절하는 것’이라하고 있다.<sup>11)</sup>

홍석일(2007)은 “디자인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이고,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예술적 노력이라고 했을 때 개인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예술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 공공디자인이라고 개념화 하고 있다.<sup>12)</sup>

이와 같이 공공디자인은 공공영역의 디자인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술적·법제적으로 공공디자인이란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다.

표2 . 공공디자인 영역 <서울대학교, 2006>

공공 공간 디자인 <sup>3)</sup> (Public Space Design)	도시경관(landscape) : 일정한 공간 단위의 통일적인 외관 공공건물 : 관공서와 공공 문화시설 등 도로 : 인도와 차도 등 교통 공간 개방 공간(open space) : 공원, 광장, 녹지 등 역사 공간 : 공묘능원 등 문화유산과 전통 거리 등 특별지역 : 문화, 관광 등 특별 지정 지역 도시 색채 계획 야간 조명 계획
공공 시설 디자인 (Public Equipment Design)	가로 시설물(street furniture) : 가로에 설치되는 각종 장치물 기타 공공 시설물 : 공공시설 및 개방 공간에 설치되는 각종 장치물
공공 정보 디자인 (Public Information & Sign Design)	국가 기구 상징물 : 각종 국가 문장과 정부 기관의 표시 국가 행사 상징물 : 국가 의례, 국제 행사 등의 상징물 국가 인증 물 : 화폐, 우표, 주민등록증, 자동차, 표지판, 기념품 등 국가 정보 시스템 : 정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정보 시스템 정부 간행물과 포스터 : 각종 홍보물과 캠페인 포스터 지자체 상징물 : 지자체 CI와 지역 축제 관련 상징물 등 교통 안내 시스템 : 도로 표지판, 신호 체계 등 관광 정보 시스템 : 각종 관광 정보 시스템과 관광지 안내판 등 옥외 광고물 : 간판, 전광판 등 각종 옥외 설치 광고물
공공 용품 디자인 (Public Supplies Design)	공공 기관 용품 : 각종 공공기관의 내구재 및 소모용품 공공 서식 류 : 각종 행정 서식 류 국가 조직 통합물 : 군경 제복 및 각종 국가 조직의 통합 식별 품목 공공 관리용품 : 제단대비 민방위 용품

표 3. 공공디자인 범주 및 영역 <공공디자인협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부 내 용	
공공공간 디자인 (Public Space Design)	도시 환경	이외공공공간계 (open space)	공원 운동장, 묘지, 공공기관 부속용지, 광장, 놀이터, 집회시설, 보도, 쉼터공원(pocket park) 혹은 기타 유사 기능의 공간디자인	
		기반시설공간계	도로, 주차장, 터널, 철로, 고가도로, 교량, 관개/배수시설, 상하수도시설, 하수처리장, 발전소 혹은 기타 유사 기능의 공간디자인	
	공공 건축 및 실내 환경	행정공간계	공공아도, 마을회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동사무소, 군사공간, 교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정부 행정부처 건물, 외국공관 건축물 혹은 기타 유사 기능의 공간디자인	
		문화/복지공간계	시민회관, 문화제,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립립 복지시설, 국립립 의료시설, 보육원,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소 혹은 기타 유사 기능의 공간디자인	
		역사시설공간계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휴게소 혹은 기타 유사 기능의 공간디자인	
		교육/연구공간계	국립립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유아원, 교육원, 훈련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혹은 기타 유사 기능의 공간디자인	
	공공 시설물 디자인 (Public Facility and Product Design)	교통 시설	보행시설물계	보행 신호등, 펜스(Fence), 볼라드(ballard), 가드레일(guardrail), 가로표식, 에스컬레이터, 경유장, 자전거 주차대, 육교, 지하도, 보행 유도등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운송시설물계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억제물, 주차시설, 주차요금징수기(parking meter), 공공기관 소유 차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편의 시설		휴게시설물계	벤치, 의자, 쉼터(shelter), 옥외용 테이블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위생시설물계	휴지통, 음수대, 제설기, 화장실, 세면장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판매시설물계	매점, 무인 키오스크(kiosk),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공급 시설		관리시설물계	맨홀, 전산주, 보행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제시설, 범죄예방장치, 신원확인장치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정보시설물계	중중전화, 풍향계, 시계, 온도계, 인포부스(info booth), 관광안내시설, 지역 안내도, 교통정보판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행정시설물계	각종 집기과 도구, 제복, 가구, 문구, 표찰, 무인 민원처리기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공공매체 디자인 (Public Communication Design)	정보 매체	지시/유도 기능매체계	이경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안내도, 지하철도안내도, 방향유도사인, 규제사인, 자동차 번호판, 각종 픽토그램 등과 같은 시각매체의 디자인	
		광고기능매체계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배너(banner), 기(flag), 홍보영상 등과 같은 시각매체의 디자인	
	상징 매체	행정기능매체계	국가상징사인,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사인, 국가기관 상징사인, 각종 증명서, 공문서 서식, 각종 출판물, 표지, 각 기관 웹 페이지 등과 같은 시각매체의 디자인	
		유통기능매체계	화폐,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과 같은 시각매체의 디자인	
		환경연출매체계	벽화(mural painting), 슈퍼그래픽(super graphic), 미디어 아트(media art), 오감연출매체(sound scape, light scape) 등과 같은 시각매체의 디자인	
	공공디자인 정책 (Public Design Policy)	행정 및 정책계	문화진흥정책, 산업정책, 보건복지정책, 환경/자원정책, 기술정책, 문화행정, 지역개발, 관광자원개발, 이벤트 산업, 국민건강진흥, 스포츠복지, 예술정책 등 공공디자인을 진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관련법규계		경관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의장법, 산업디자인 관련법, 산업재산권법, 보건복지법, 문화재보호법, 교통안전법, 행정법 등과 같은 공공디자인을 진흥할 수 있는 법의 연구		

11) 행정자치부, 공공디자인 매뉴얼, 2007

12) 홍석일, 도시 공공디자인의 의의 및 필요성

13) 문화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대학교, 2006

공공디자인에서의 환경은 하나의 범주가 아니라 공간, 시설, 사용물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가장 큰 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이 포함하는 영역과 대상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념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그 개념만큼이나 다원화되어 있으며 범주 또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사용주체의 특성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개념의 공간과 시설 그리고 공용시설물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의 양적 보편성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사용 주체 중심의 편의와 안정성 그리고 심미성 등 질적인 개념은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디자인 시설물이 동시대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이질적으로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공공디자인은 미래에 형성될 공간으로 이어주는 21세기 사회의 다양한 시대정신을 담는 산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 III. 보편적 소통의 학교 공공디자인 고찰

#### III-1. 능동적 가치의 공공성과 공공디자인 역할

1960년 중반까지 사용 주체자의 개념과 역할은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19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장소와 건축물 사용자의 능동적 역할에 기초한 적극적인 의미의 주체자 개념이 사회학자와 건축가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대표적인 건축가로 네덜란드의 구조주의<sup>14)</sup> 건축가로 알려진 헤르만 헤르츠버거(Herman Hertzberger)가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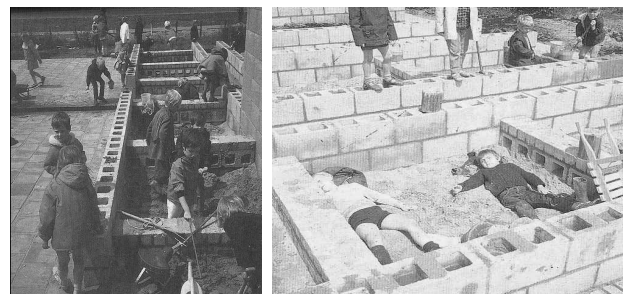
헤르츠버거는 각각의 건축물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건축가는 사용자가 반드시 각각의 부분과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가를 그들 자신을 위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으며, 사용자가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의 장이 되는 공간 활용도가 높은 공간과 형태, 더 나아가 사용자가 창의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가변적 공간을 디자인할 것으로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보편적 소통의 능동적 주체자를 위한 유연하고 가변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방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헤르츠버거의 가변적 개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건축가 디자인하고 나머지는 사용 하는 주체자들의 능동적 해석과 점유의 영역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가변적이고 유연한 공간을 디자인한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대표적 공공디자인으로는 네덜란드 델프트시에 위치한 몬테소리(Montessori) 학교 프로젝트를 볼 수 있다. 이 학교 프로젝트에서 헤르츠버거는 아동 학생들의 여러 가지 행위를 단계별로 소통과 공공성 측면으로 분석하여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공공디자인의 모티브로 작용한 공공공간이 시멘트 블록 모래놀이 공간이다.

헤르츠버거는 공공디자인 초기단계에서 사용 주체자인 아동의 행위 분석을 통해서 모래성을 쌓고 노는 어린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2~3명씩 그룹을 형성하여 자유롭게 놀이 행위를 하는 형상을 관찰하였다. 또한, 그룹 형성 중 4명 이상으로 형성된 그룹은 모래성을 만드는 행위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더욱이 모래놀이공간을 정해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들면 고학년 학생들이 이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모래성을 만들고 노는 저학년 학생들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간적 점유와 시야범위가 넓어져 이들이 집중하여 만들고 노는 일이 어렵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사용자의 활동을 위한 공공영역으로서 친밀성있는 교감이 활성화되는 적정 규모로 구획된 경계 공간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공공공간으로 디자인하였다.



14) 네덜란드 구조주의사상은 1920년에서 60년대까지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었던 CIAM의 기능주의에 대한 반발이라 할 수 있다. 1927년부터 계속 진행된 CIAM회의는 2차대전 이후 폐쇄된 상황에 대한 적합한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의 발생은 이 시기 Team 10이라는 젊은 건축가들 사이에서 CIAM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1959년 10차 CIAM 회의에서 분열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근대건축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했던 포스트모던건축의 성격과는 다르다. 최재석, 네덜란드 근대건축, 서우출판, 2004





그림 3. Montessori primary school, Delft, Netherlands, 1960-66

이 소통적 학교 공공 공간은 앞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양한 놀이의 행위와 경험이 통합되고 인접되는 가변성있는 학교 공공디자인이 되었다. 어린 학생들은 모래성을 독창적으로 구축할 뿐 아니라 놀이도 하며 시멘트 블록 경계석을 따라 외줄타기를 하기도 하고, 경계선 내외부영역을 넘나들며 모래놀이를 한다. 여기에서 사용 주체자는 단순히 공간을 소비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 공간을 재해석하고 점유함으로써 자기만의 미적, 실용적 방식으로 공간을 재창출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에서 능동적으로 사용 주체자가 공공영역의 재해석하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체험적 제공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교육학 이론의 상황학습 이론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나 사용자에게 경험을 제공해서 학습자나 사용자가 나름대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돕는 교육이론과 같이하며, 특히 학교교육이 학습자의 경험을 반영하는 풍부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자의 경험과 체험적인 활동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방법을 터득하도록 하며 사용자 중심의 공공성을 위한 상황적인 공공디자인의 창출에 맥락을 같이 한다.

### III-2. 도시 재생적 소통의 공공디자인

세계적인 흐름은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기존의 많은 도시의 재개발이 공공적 디자인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적 참여가 활성화되어 접근되고 있다. 이 접근은 다양한 보편적이고 소통적인 실패

와 성공을 일으켰다.

한국사회의 특징이면서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공공디자인은 가로공간을 중심으로 한 활력 있는 도시, 도시의 다양성 확보, 도시보존 및 재생수법 등 3차원 공간이미지와 지역사회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도시 만들기가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먼저 지역성, 공간적 특성, 역사성에 부응하는 도시를 창조하는 것이며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들을 참여시키는 프로세스가 중요해졌다. 종전에는 도시개발의 문제가 개발업자와 행정중심의 도시 만들기였다면 현대사회는 사용 주체자인 지역주민, 시민단체, 행정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도시공간과 경관을 형성하는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를 구획하는 작업을 정치가나 행정가, 도시전문가의 전문 지식에만 의존하였다면 이제는 대중이나 사용자의 요구로부터 도시의 공공디자인이 계획되고 있다.

이는 도시 재생공간의 계획이 단순한 하드웨어의 구축이 아니라 공공성과 사용자 소통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구축이 중요하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5)</sup>

해외사례로서 프랑스 리옹의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재생계획을 볼 수 있다. 프랑스 리옹은 1980년대 초부터 공공 공간 개선 사업을 통한 도시 이미지 및 도시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였다. 1989년부터 2000년까지 도시의 인간적인 면모를 되찾기 위해 공공 공간 개선 정책을 펼쳤으며, 공공디자인 사업 범위가 광역계획, 지역도시계획,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등에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하였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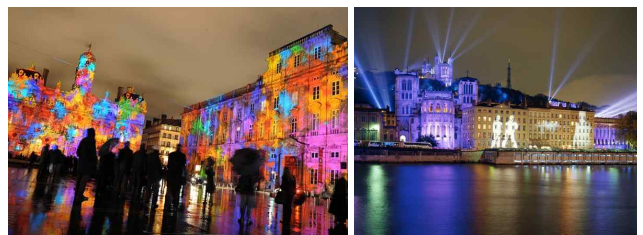


그림 4. 프랑스 리옹시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프랑스 파리 북쪽의 플랜 생드니 지역(Avenue Wilson, Planie St. Denis)은 길이 1.3km 고속도로 상부에 인공대지 조성 공원화 사업으로 이 지역은

15) 최인규,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시공문화사, 2008

16) Jan Gehl, Lars Gemzoe, New City Space, the Danish Architectural Press, 2000

생드니 운하를 따라 공업지대가 형성되었으며, 프랑스 북부로 향하는 고속도로 A1이 관통하여 소음과 매연 문제 뿐 아니라, 고속도로로 인한 단절 문제가 심각하였다. 이에 고속도로 위에 인공 대지를 조성하고 지역 사용자를 위한 공원화 공공디자인계획을 수립하였다. 인공대지 부분은 공원을 조성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외곽순환도로로 인한 거대한 도로 구조인프라를 공공성을 부여하여 최소화하여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이는 도시의 단절을 의미하는 고속화도로 공간의 의미에 공공영역을 부여하여 통합의 매개체로서 새로운 공공디자인을 창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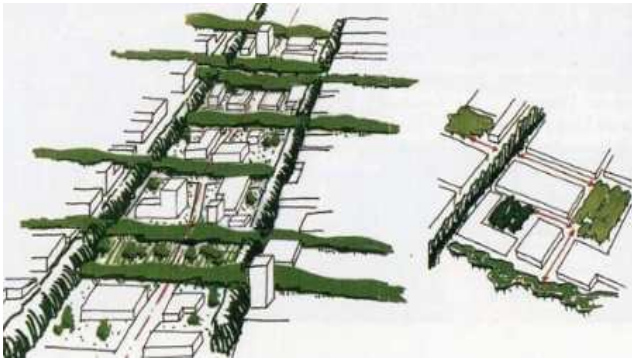


그림 5. 파리 플랜 생드니 지역 개념도



그림 6. 플랜 생드니지역 공공디자인 조성 공원

## VI. 공공성 구현의 지역 학교 공공디자인의 방향

도시에는 대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건축물과 공공 공간들이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도시의 경관을 창출한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은 사용자 위주의 공공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은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지역 학교 등에서는 주민참여 등 적극적으로 일반대중들이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참여의 길이 열려 있으나 일반 사용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 대중들에게 건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편적 소통을 위하여 우수한 지역과 소통하는 공공건축물과 공공디자인이 구축되어야 한다.

최근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미술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여론적 관심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공공디자인 사례는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거리, 지하철, 공원을 비롯해 도시 공간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공간디자인은 국내의 경우 도시문화 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이하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인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용 주체자를 고려한 작가들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가 공적 자금을 통해 주관하는 프로젝트들이 점차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철학자 칸트는 공공이 갖는 ‘공통감(common sense)’을 “일상적 삶 속에 깃든 개인의 심미적 경험들과 취미 판단들을 사적인 영역에 구속하지 않고, 소통 가능한 경험과 판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sup>17)</sup>, 학교와 같은 공공성이 극대화되는 공공건축에서의 공공디자인은 이러한 사용 주체자의 보편적 소통 가능한 공간과 디자인이 사회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 공공디자인에서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공성의 실천은 현대의 개성이 강조되고 이윤을 추구하는 문화 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17) 강내희, 의림과 시적 정의 또는 사회 미학과 코뮌주의, 문화과학 53호, p49



학교 공공디자인과 같은 문화적 행위는 사용자가 다양한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소통의 조율이 조금씩 진행되는 일로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계획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분리에 대한 인식을 거두고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이 한데 얽혀 있음을 인식해야하며, 개인적 삶 속에서 공공 영역이 들어가 있고 공공 영역이 개인의 삶과 관련되어 있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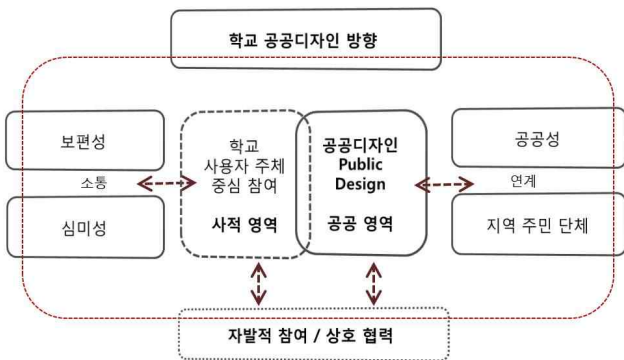


그림 7. 학교 공공디자인의 방향 체계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도시 인프라 디자인, 공공 공간과 공적시설 디자인을 정책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쉽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디자인의 근본적인 조건은 사용 주체자들의 디자인 욕구에서 출발한다. 공공디자인이라는 삶의 형식이 바뀌면 그로 인해 삶의 내용도 바뀔 수 있지만, 반대로 삶의 내용이 형식을 규정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그림 8. 마산 부림시장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도시의 물건 흐름과 사람들의 이동, 폐기물과 쓰레기의 흐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의 동선이 생겨난다. 이를 통하여 공공성의 도로와 골목은 이렇게 형성되어야 한다.

그림.8은 마산 부림시장 프로젝트로 작가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공공디자인이 아닌, 사용 주체자의 행태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자의 소통과 경험적 해결로 공공디자인을 수행하였다.

어떠한 공간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 사용자나 주민들보다 더 잘 인지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상황주의적 ‘경험’을 통하여 공간의 공공성이 해결된다. 이와 같은 공공성 구현을 위한 학교를 비롯한 지역 사용자들이 적극적인 공공디자인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 공공디자인은 지역의 역사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은 도시의 옛 모습을 모두 밀어버리고, 새로운 것만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디자인 사업이 오히려 지역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앞서나간 몇몇 도시를 복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그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예산이 부족한 중소도시의 지자체 경우 엄두도 못내는 사업이 되고 있다.

공공디자인 사업은 빛나는 지역을 더욱 빛나게 할 수도 있지만, 빛을 잃어가는 지역에 다시 빛을 비추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노후화된 도시 재생으로 인한 중소도시의 경우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학교 공공건축은 물론이거니와 상대적으로 원도심이 쇠퇴하고 있다. 지역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원도심이 재생이 안되고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중심인 학교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사용자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중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VII. 결론

최근 몇 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정부주도 아래 수많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통한 공공디자인 정책 활동은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가방식과 우수한 시설물의 도입 및

개발 및 운영에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아 학교시설 등의 공공건축 및 시설분야별로의 선진국형 공공디자인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학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내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활동은 일본의 요코하마, 독일의 베를린, 이태리 토스카나 주의 피렌체, 소피아양티폴리스의 공공디자인 지자체위원회 사례에서와 같이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지역 내 시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 지자체, 대학 및 일부 지역사회지도자들의 선도와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개발 사업이 주민의 다양한 발전적인 의지와는 격리된 채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 다양한 형태의 공공디자인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특히 학교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에서 주체가 되는 지역 학교의 사용자 및 지역민의 공공성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소통하여 공간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그 공공디자인이 지향하는 공공성의 가치와 소통의 디자인적 방향에 대하여 공공성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학교 공공디자인에서 가장 필요한 보편적 소통과 이를 바탕으로 하버마스에 사적영역과 공공영역으로 분류되는 실천적 의미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역사적, 미학적인 개념의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상기의 이론적 논리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의 공공성의 개념과 공공성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보편적 소통 개념 및 역할을 살펴보고, 공공디자인을 위한 기초적 의미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보편적 소통을 위한 학교 지역 사용자 주체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자발적인 도시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공공 공간의 특성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경험을 유발하는데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셋째, 도시의 재생적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 공공디자인의 공공성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 사용자 주체를 통한 공간디자인 방향성을 고찰하였다.

정부주도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흐름 속에

서 생산과 소비에 의한 디자인 생산 기업의 이윤을 바탕으로 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의 가치를 간과한 공공성은 사적영역과 공공영역의 불균형 사이에 높은 사용자를 위한 공공영역인 공공디자인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이라는 공공영역이 나아가야 할 바를 보편성과 공공성의 이론적 개념을 통하여 사회적 실천으로 이해해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공통감과 공공성은 보편적 소통이라는 개념을 지닌다. 이러한 보편성은 '코뮰적 공공성'에서 제시하듯이 무한한 가능성과 사용자가 소유하려는 '벗어나기'와 '공통적 공유'로 지칭하며 이는 현대의 공공디자인에서의 '공공성' 개념과 같다. 이는 철학자 칸트의 사회의 공통감 획득, 보편적 소통 가능성과도 같이 한다.

다양한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보편적 소통은 다양성을 포함하는 주관성으로 의미로 공공성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공공디자인개발 사업이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활성화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부문에서 주민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지금보다는 더 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디자인관련 분야별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지들이 함께 모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혁신방안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디자인 주체 간 네트워크가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연결되도록 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이러한 공정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구심체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별 공공디자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적 소통의 시각으로 지역정서를 받아들이고 지역의 성격을 국제화로 변화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자발적 참여정신과 협력을 통한 지역 내 공공기업 및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얻어 그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보편적 소통에 대한 지역학교의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사용자의 창의적 사고와 행위 및 경험에 중심이 되며 주가 되는 현대 공공 공간에 있어서, 공공성의 공간은 지역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의 독창적 경험을 가중시키는 공간이어야 하며, 서로 다

른 사용자 간의 보편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공간 이용자가 다양한 매체와 사용 행위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공공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공공공간에서는 공공적 성격만큼이나 개별적 성격이 강조된다. 공공성 구현의 공공 공간이란 일반적으로 외부 개방공간이 아닌 오히려 내부와 외부의 연결을 시킨다. 다시 말하여 개인과 사회를 가로지르는 총체적인 경험적 환경이며, 이것은 사적 영역의 공공영역화이며, 공공영역의 사적 영역화라는 개념에서 중간의 장소라 볼 수 있다.

특히, 학교 공공디자인에서는 사용자의 총체적인 경험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보편적 공공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학교 내 커뮤니티별로 특성화되거나 개별적 활동 특성 변화에 맞는 공간의 접근성, 다양성, 적용성, 특화성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 공간 구성을 위해서는 공간의 단순한 영역화 보다는 학교 주변환경의 가로나 운동장 및 소광장과 같은 외부 공간과 반응하는 도시적 연계나 내부공간의 작은 도시화와 같은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공간 환경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교 공공디자인의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 공간의 초기기획단계에서부터 평가단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공공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학교 이용자 중심의 보편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초기단계에 학교의 지역 및 커뮤니티의 공공적 참여와 디자인의 협업시스템 구축, 통합적 공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고길섭,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로지르기: 공공영역과 공공성의 정치, 문화과학 통권23호, 문화과학사, 2000
2. 김경욱·최범외,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문화관광부. p44. 2006
3. 김세용, 공공공간 그리고 공공디자인. 「건축과 사회」. 제13호. (사)새건축사협의회. 2008
4. 김정후, 영국의 공공디자인 정책과 시사점, 국토:08년1월호, 국토연구원, 2008
5. 도시재생네트워크, 뉴욕·런던·서울의 도시재생이야기, 픽셀하우스, 2009
6. 문화관광부,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방향, 한국문

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7. 박소영, 공공디자인을 통해 발견되는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학건축학회지, 제24권 제8호, 2008
8.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윤대석 외 역, 도서출판 이음, 2009
9. 서수정, 고은정, 공공 공간을 매개로 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10. 서수정, 조준배, 임현성,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7
11. 신승수, 사용자 중심의 중층적 공공성 실현을 위한 건축 디자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
12. 이상헌 2008.공공영역 대중의 등장과 공공건축. 「건축과 사회」.제 11호. (사)새건축사 협의회
13. 정강화. 도시 공공디자인의 해외 성공사례. 「도시문제」.10월호, 월간 도시문제. 2007
14. 정봉금, 21세기 문화산업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15. OECD, School for the Future: Exemplar Designs

(논문투고일 : 2014.02.28, 심사완료일 : 2014.03.25, 게재확정일 : 2014.04.07.)